

중견기업 성장속진 전략

2023.01



✓ 우리 산업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

당면 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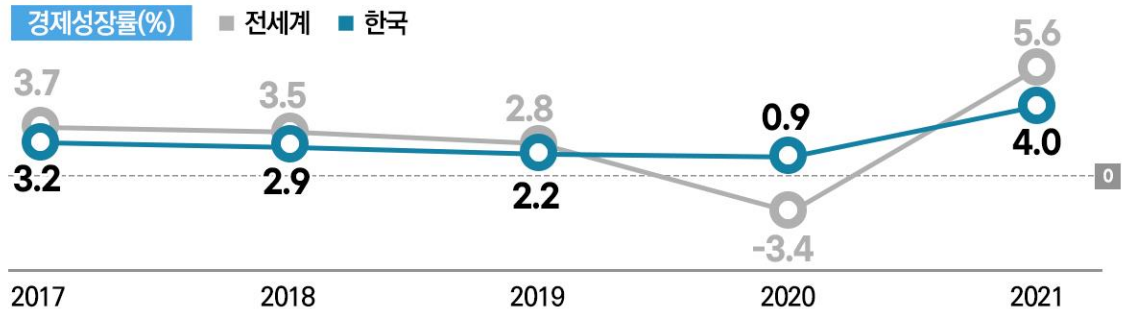
- ✓ 미·중 패권, 러·우 사태 등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
- ✓ 고물가, 고환율, 고금리 등 경제 하방 압력

중장기 트렌드

- ✓ 디지털 전환, 탄소중립, ESG 등 중요성 확산

우리 경제

- ✓ 세계 평균 대비 낮은 경제 성장



✓ 중견기업은 그간 탄탄한 경쟁력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 수행

글로벌 금융위기 대기업보다 2배 이상 빠른 회복

금융위기 이후
기업매출
(’09=100)



일본 수출규제 대일 의존도 완화에 기여



A社

- ✓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국산화

B社

- ✓ 고순도 불산 대량생산
→ 對日 의존도 완화 (50%→10%)

공급망 핵심 위치 튼튼한 산업구조 형성에 일조

업종별 산업 내 중견기업 비중(매출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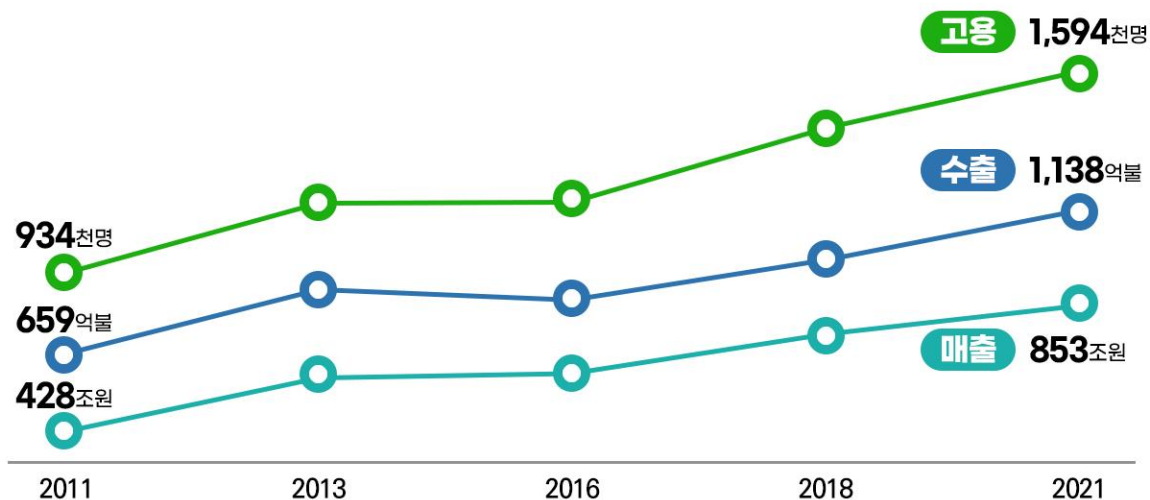
실물경제 위기 극복과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필요

2 중견기업 현황 및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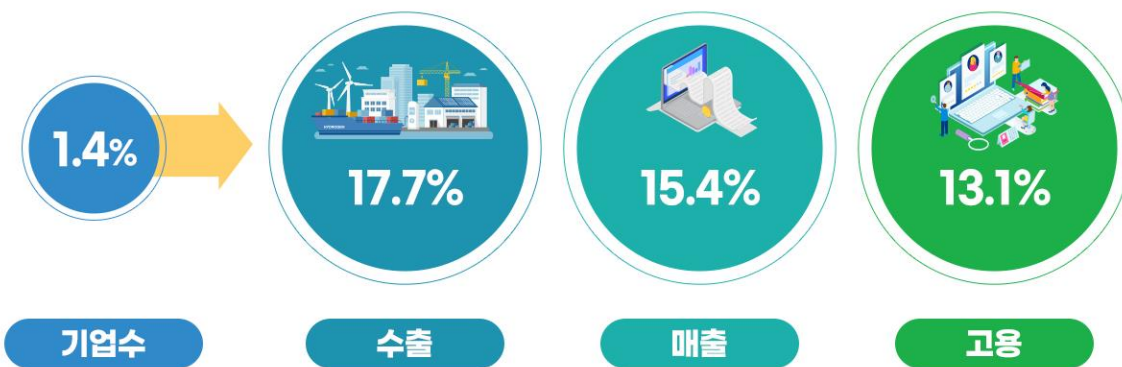
1 중견기업 위상

✓ 지난 10여년간 기업수 2배 이상 증가, 수출·고용 등 견인

연도별 중견기업 현황



우리경제 중견기업 비중('21)



✓ 소부장,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군에 포진



- ✓ 전체 제조 중견기업의 84.6%(1,683개社)가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
- ✓ 소부장 으뜸기업 43개 中 53.5%(23개)가 중견기업 (대기업 3, 중소기업 17)



- ✓ 바이오 산업 매출의 58.9% 중견기업이 차지

2 중견기업 현황 및 진단

2 중견기업 現 상황 진단

01 양적성장 측면

중소 → 중견 성장 중소 > 대·중견의 침투형 구조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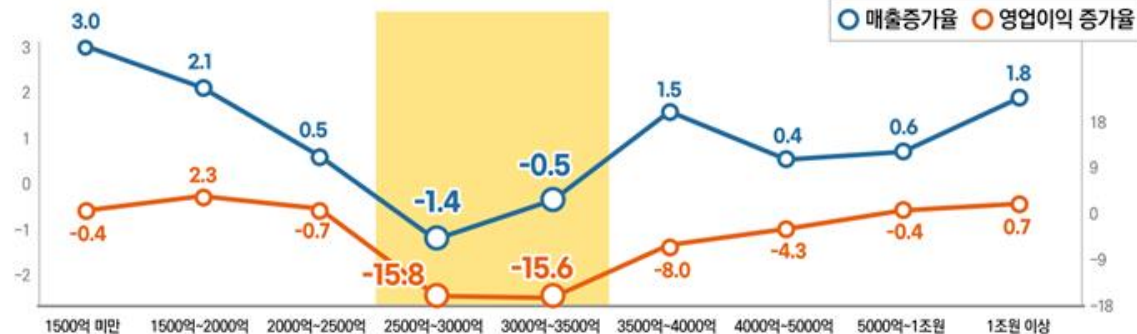
대·중견·중소 기업 비중



중견기업 內 성장 초기 중견기업 매출 3천억 ↓에서 정체

* 연평균 증가율 : '16~'20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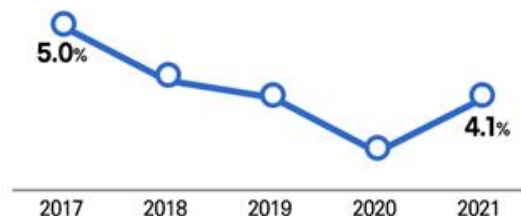
구간별 매출·이익 증가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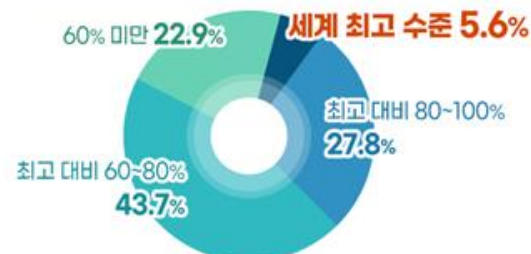
02 질적성장 측면

글로벌 혁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부족

수출 1억불 이상 중견기업 비중



중견기업 기술수준 (실태조사, '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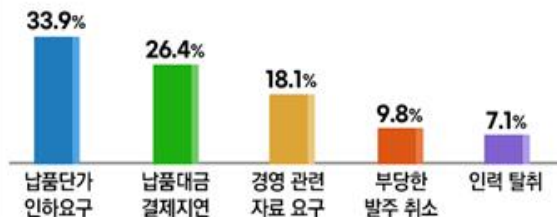


하도급 거래 구조 대기업 등과 하도급 관계 → 자체 경쟁력 약화

제조 중견 수위탁



불공정 거래 경험



新 환경변화 대응 디지털화를 넘은 디지털전환 경쟁력 확보 미흡

- 대다수 중견기업은 기본적인 자동화 시스템 보유 단계
→ 빅데이터, AI 등을 통한 본격적인 DX 활용에는 한계

2 중견기업 現 상황 진단

03

성장인프라 측면

기업의 자발적·적극적 혁신 유도 미흡

- 정부 예산투입 중심의 지원 구조 → 기업의 자발적 혁신·투자 유인 미흡
- 「월드클래스 300」 출범(11) 이후 10여년 경과 → 공급망 재편, DX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역할 제시 필요

간접 금융(대출) 중심의 재원조달로 외부 충격에 취약

中堅 외부 자금조달원



중견기업 대출규모(산은, 조원)



중소 → 중견 성장경로 간 연계 부족 + 중견기업법 안정성 문제

- 성장 단계별(중소 → 중견 → 글로벌) 유기적인 지원을 위한 산업·중기부 협력 강화 필요
- 「중견기업법」 '24.7월 일몰 예정 →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

정부
지원

금융

제도

2 중견기업 現 상황 진단

참고

현장의 목소리 (중견기업 실태조사, '22.12, 1,400개사)

1 인재 확보

- 적합한 인재 부족(47.4%)·근로 조건(17.9%) 등 미스매치 문제
- 특히 지방 소재 중견기업들은 인재 채용난 가중

신규채용 애로사항



2 수출 및 해외 진출

- 환율 변동(40.0%), 부대비용(16.6%) 등 어려움
- 통관·인증 등 규제(9.0%)에 대한 애로 호소

수출 애로사항



3 신사업 추진

- 현재 사업에 안주(61.5%)하는 경우 다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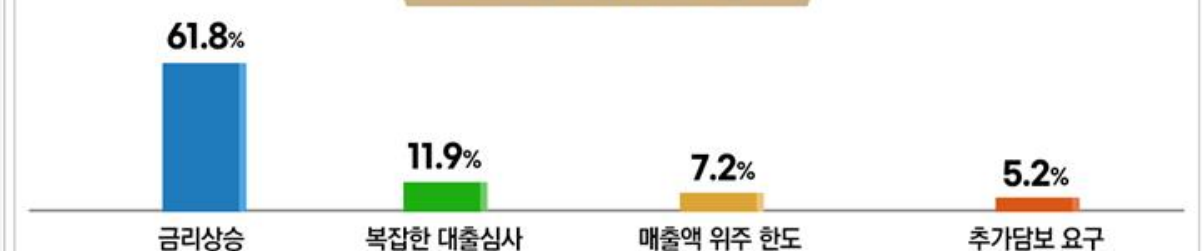
신사업 미추진 사유



4 자금 조달

- 금리상승(61.8%)이 가장 큰 애로 요인

외부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





現 상황 진단



- 중소 97.8%, 중견 + 대 2.2%의 **첨탑형 구조**
- 세계적, 독자적 **경쟁력 확보** 미흡
(글로벌 시장, 하도급 구조, DX 등 환경변화 대응)



- 일정 규모에서 성장 정체 (중견 **성장 Death Valley**)
- 기업의 자발적·적극적 **혁신 유도** 미흡
- 간접 금융(대출) 중심의 **재원 조달**



- 「중견기업법」 일몰('24.7)로 **법적 안정성 ↓**
- 지방 중견기업 인재 채용 애로 호소



정책 방향



**글로벌 진출, 공급망, DX 등
중견의 산업생태계 중추 역할 강화**



**신사업 진출 등 혁신에 도전하는
중견을 주기적 지원**



법, 인력 등 성장촉진형 인프라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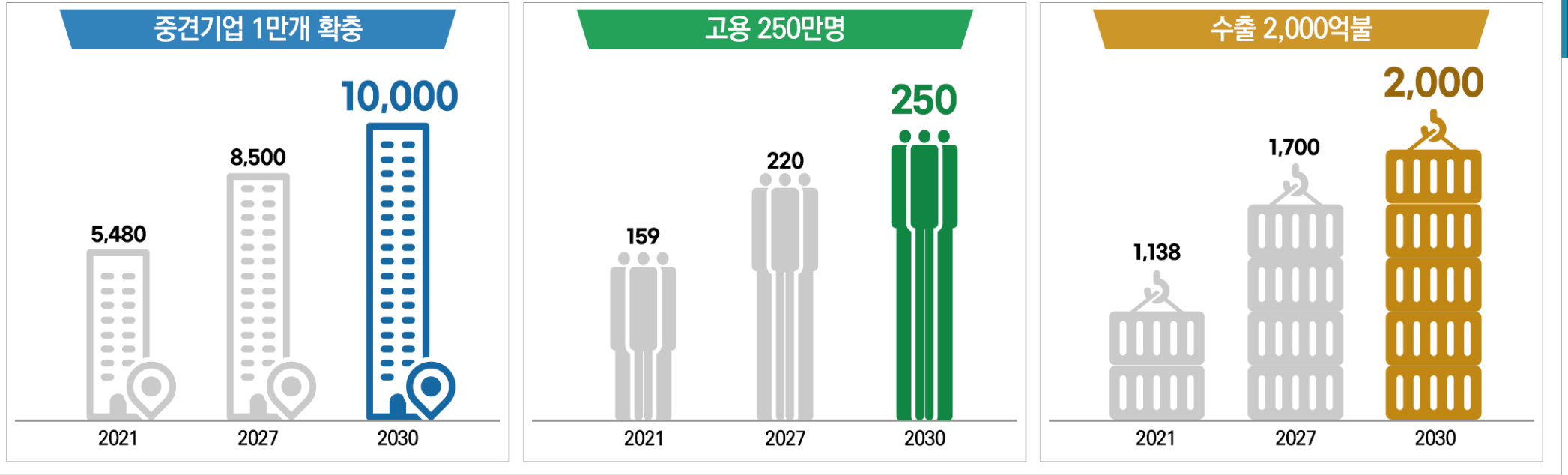


비전

World Best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



목표



지원 원칙

글로벌 진출, 공급망 안정화 등 中堅의 **산업 중추역할** 강화

신사업 투자 등 **도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**하고 Risk 분담

민간(앵커 中堅, CVC, PEF 등)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혁신 자극

✓ 3대 전략 10대 과제

1

튼튼한 산업생태계를
위한 「中堅 4大
전략적 역할」 강화

① 글로벌 진출

「수출 선도기업」 육성(150개社) 및 수출 지원 체계 구축

② 공급망 안정화

중견·중소 Value Chain을 이끄는 「공급망 선도기업」 (100개社)

③ DX 변화대응

D.N.A로 New Biz를 창출하는 「DX 선도기업」 (160개社)

④ 성장사다리 확충

앵커 中堅으로 고속 성장하는 「고성장 혁신 기업」 (1,000개社)

2

中堅의 자발적 신사업
도전을 유도하는
순주기적 체계 구축

① 신사업 발굴

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발굴 기회 확대

② 기술 확보

투자 촉진형·민간 참여형 中堅 R&D 추진

③ 투자 확보

「中堅 도약지원 펀드」 조성을 통한 신사업 투자 지원

3

중견기업
성장촉진형
인프라 조성

① 중견법 정비

「중견기업법」 재정비 및 「중견기업 정책위원회」 내실화

② 걸림돌 해소

중견기업의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

③ 인재 확충

지방 중견기업 인력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

中堅 15대 핵심산업중심 4대 분야 초격차·고성장 중견기업 집중 육성

- ✓ 중견기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① 글로벌 진출, ② 공급망 안정화, ③ 디지털 전환 분야에 민·관이 1.5조원 이상 투입
- ✓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④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·중기부 프로그램 통합 지원



1 글로벌 진출 「수출 선도기업」 육성 및 수출 지원체계 구축

글로벌 TOP3 또는 세계최초 기술·제품 등을 기반으로 한 「수출 선도기업」 150개社 육성

* 월드클래스+ (21~33, 9,135억원) 사업을 개편하여 기업의 전략성·해외 진출 지원 강화

지원대상

- ✓ 기술 혁신 및 수출잠재력을 보유한 중견·후보 중견기업
- ✓ 매출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~1조원 사이의 후보 중견기업
- ✓ 수출 비중 50% 미만(직전년도)
- ✓ R&D 집약도 1% 이상 (최근 3년 평균)

R&D + HIR&D 패키지 지원



- ✓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 높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분야 집중 지원 (4년간 최대 60억원)

* 그 외 분야는 4년간 최대 40억원
* '23년 16개 R&D 과제 지원 예정



- ✓ 6천억원 규모 전용 융자 프로그램 신설 (산업은행, '23~)
- ✓ KOTRA(수출바우처), 무역협회(FTA) 등을 통한 판로 지원

시장 개척형 상용화 R&D 지원

기존 타겟 국가

R&GD



수출 국가 확대

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,
국가별 시장, 환경을 고려한
글로벌 진출 상용화 R&GD 추진 검토

1 글로벌 진출 「수출 선도기업」 육성 및 수출 지원체계 구축

수출 바우처, 무역금융, 수출 지원 거버넌스 등 전방위 지원

수출 지원 프로그램



- 수출 바우처 제도에 「혁신형 지원 트랙」을 신설 검토 → 수출 유망 中堅 집중 지원

내수형	일반형	혁신형(신설)
수출 10%↓ 또는 1천만 달러 미만	일반 중견기업	세계일류상품 생산 등 수출 잠재력 보유

- 프리미엄 지사화 프로그램 시범적으로 운영 → 기업의 시장조사, 마케팅, 거래선 관리 등을 지원

수출 보험·보증



-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수출통지 간소화(건 단위 → 연간 단위)

- 수출신용보증 한도 2배 상향(기본한도 100 → 200억, 특별한도 200 → 400억원)



수출 지원 거버넌스



01 타겟시장 분석

- 수출 국가·품목
- 글로벌 수요기업 등 GVC 분석

* 해외 글로벌 기업 60개사 진출 시장 분포·동향 실태조사 실시('22.12~'23.6)

02 현안·애로 점검(中堅 수출지원 협의회)

- 타겟시장별 중견기업 애로·현안 점검 (월 1회)

03 애로 해소(중견기업 정책위원회)

- 중견기업이 제기한 제도·자금 등 관계부처 합동 애로 해소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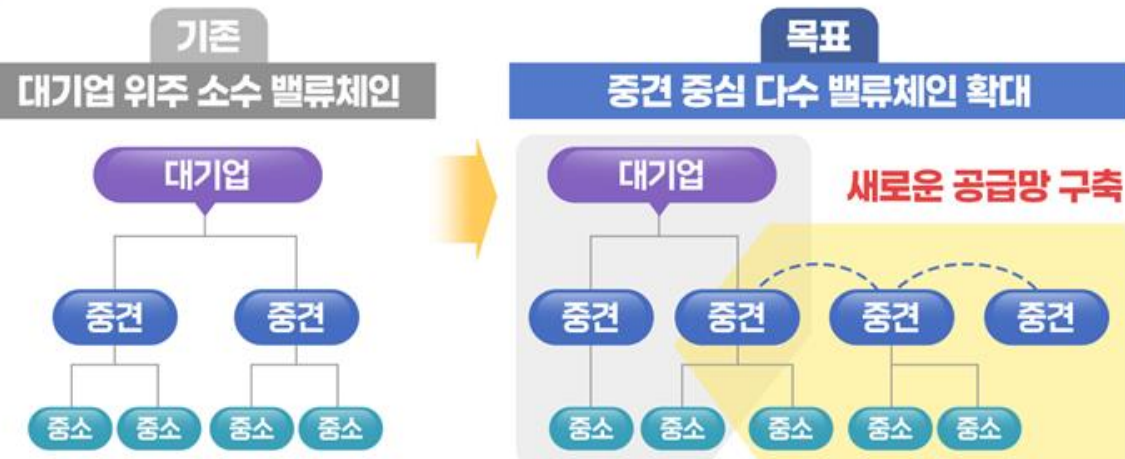
중견-중소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공급망 생태계를 리드하는 선도 중견기업 100개社 육성

* 중견·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: '23~'32, 5,855억원(국비 4,282, '23년 5개 컨소시엄 선정·지원)



유형1 中堅 중심 VC 재편 : 신제품 개발

- 중견 중심의 새로운 VC 구축을 위한 제품·Biz 모델 개발 지원



유형2 新 GVC 편입 : 해외 판로개척

- 해외기업 구매·기술개발 수요에 기반한 중견·중소 공동 R&D 지원 → 새로운 GVC 편입 지원



유형3 기존 VC 경쟁력 제고 : 품질·공정 개선

- 제품 성능·품질 및 연계 공정 개선 지원
→ 대·중견·중소 공급망 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



상생시스템 도입 :
R&D 성과물의 합리적인 배분
및 기업간 분쟁 최소화

- 과제 선정시 상생협력 평가 도입 → 기업간 성과공유 계획 수립 유도
- 상생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 → 기업간 분쟁을 신속·공정하게 조정



3 디지털 전환 D.N.A로 New Biz를 창출하는 「DX 선도기업」

공급망 지능화 확산 및 New-Biz 창출을 주도하는 「DX 선도 중견기업」 160개社 육성

* 「(가칭) 중견기업 DX 도입·확산 지원 사업」 신설 추진('25 ~ '34, 예타 신청 예정)

01

DX 전략 수립

지원 대상

디지털 혁신·확산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

지원 분야

DX 추진 시급성과 파급력이 큰 업종·기술분야

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
DX 추진전략 수립 지원

02

개별 기업 단위 DX 고도화

개별 공장의 AI 및
빅데이터 기반 DX 추진지역 및 해외공장을 연계한
DX 추진

* 우수기업에 융자지원 통해 DX 추진 가속화 지원

03

기업간 DX 적용·연계 확대

DX 선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
밸류체인 내 DX 확산

DX선도 중견기업 160개社 육성



5,000개 중소기업에 DX 전파

- 현재 매년 약 300개社가 중견기업으로 성장 → 성장 가속화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추가 성장

➡ '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확충 ('21년 5,480개 → '30년 1만개)

01

중소 → 중견

성장유망 분야 지정

(15대 중견 핵심분야 중심)



- 산업부·중기부 합동으로
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, 중소기업이
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 선정

* 성공사례, 잠재 시장규모, 산업 경쟁력 등 분석

02

고성장

혁신기업 선정



- 성장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
성장성·혁신성 등을 고려하여
매년 100개社 내외 유망 중소기업 선정

03

선정 기업

집중 지원



- 선정기업은 2년간 자격 유지
- 고성과 기업(상위 60%)은
최대 2년 연장 지원

* 평가·피드백 통한 진입·졸업 시스템으로
최대 300개社 지원대상 유지

01



혁신지원 플랫폼 구축

- ✓ 민간·공공의 역량을 결집하여
기업의 혁신성장 단계별
성장방향성 제시 및 맞춤형 지원

02



통합지원 패키지 제공

- ✓ R&D, 인력, 수출, DX 등
중기부·산업부 지원 프로그램에서
우선경쟁 기회 부여

03



인프라 공동활용 기반 조성

- ✓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
시간·비용을 절감하고,
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

04



「기업성장 마일스톤」 도입

- ✓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·분석을 통해
기업의 현주소 확인 및
혁신 의지 제고

유망 중소기업



중견기업
고속성장 경로 확보

1 신사업 발굴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발굴 기회 확대

✓ 산학연 네트워크

공공연구, 대학,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·사업발굴 지원

(産)
스타트업

- ✓ 공동 신사업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('22~'26, 100억원)
- ✓ 「중견-스타트업 상생 라운지」 운영 (年 6회 내외)

(研)
공공연구

- ✓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간 교류회 추진 (年 4회)
- 우수 협력 사업에 공동 R&D 지원 ('23~'27, 240억원)

(學)
대학

- ✓ 대학 내 「중견 혁신연구실」 운영
-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('23~'28, 270억원)

✓ 해외 네트워크

한·독센터, 한인공학자 등을 활용하여 해외 협력사업 발굴 지원

- ✓ 「중견-독일 기술협력센터」를 통한 독일·유럽 내 산학연과 협력 강화
- ✓ 한인공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협업수요 탐색·매칭 지원

✓ 기업간 네트워크

「중견 얼라이언스」 구성 → 분과별 협력사업 발굴 지원

- ✓ 분야별*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중견기업과 유관기관(연구소, 금융기관, 공공기관 등) 연계

* 분야별 분과(예시) : ▲ 금융분과, ▲ 기술혁신 분과, ▲ DX 분과, ▲ 탄소중립 분과 등

프로젝트 발굴형 소그룹

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과제화하는
프로젝트 발굴형 소그룹 운영

① 신청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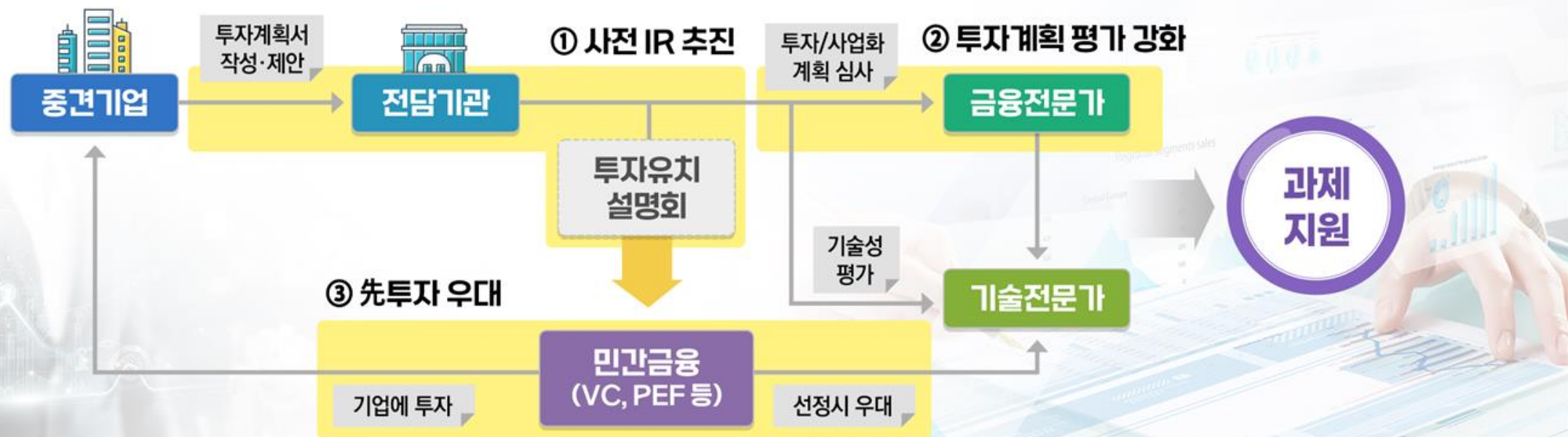
- ✓ 투자계획서 제출 필수
- ✓ 민간 금융과의 사전 IR 기회 부여

② 평가 단계

- ✓ 금융 전문가(VC, PEF 등) 사전 검토 강화
- ✓ 기업가 정신 지표 신설 → 평가시 반영

③ 선정 단계

- ✓ PEF 등으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R&D 과제 선정시 우대(가점 등)



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(정책펀드 8천억원 + 민간주도 펀드 2천억원)

정책펀드

① 중견 → 글로벌 기업 도약 지원(산업부), ② 중소 → 중견기업 도약 지원(중기부)

민간펀드

③ 중견 ↔ 중소·벤처 M&A·전략적 제휴(중견기업 주도, 「중견 연합형 CVC 벤처 모펀드」 조성)

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조성 계획안('23~'27년)

방안		조성규모(억원)	주투자대상
정책펀드	중견기업 혁신지원(산업부)	3,000	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
	스케일업 중견 도약(중기부)	5,000	후보 중견기업 및 혁신 창업·벤처기업의 스케일업
민간펀드	중견 연합형 CVC 벤처모펀드	2,000	중견-벤처 간 협력모델
총 합		1조원	

* 금년 중 1천억원 규모 중견기업 혁신지원 펀드(산업부) 1차 결성('23.上) → 후속 펀드 지속 조성(~'27)

1 「중견기업법」 재정비 및 「중견기업 정책위원회」 내실화

중견기업법 개정 : 상시법 전환, 특례 개편 등 「중견기업법」 재정비

단기 「중견기업법」 상시법 전환

- 현재 중견기업법상 유효기간* 부칙 삭제

* '24.7.21일까지



중장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

01 법 체계 개편

글로벌 전문기업의로의
지속성장, 지방 중견기업
성장 등 지원체계 강화



02 특례 정비

기존

수·위탁 공정화, 기술보호 등 실효성 보장

신규

상생협력기금, M&A, 지방기업 지원 등

03 인프라 보강

금융

중견 전용 펀드, 회사채 발행 등

집중지원

성장혁신성 높은 기업 대상

부처간 협력 체계 : 中堅 정책 관련 범부처 협의체로서 「중견 정책위」 내실화

- 장·차관급 「중견기업 정책위원회」 內 국·과장급 협의기구 운영



중견기업 정책위
실무부와 운영 방안(안)

운영

①금융, ②수출, ③기술, ④경영
총 4개 분과 신설
(분과별 반기 1회 운영)

구성

산업부/각 부처 담당자 및
유관기관으로 구성

역할

중견기업 성장촉진
기본·시행계획 등 중견 관련
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

2 중견기업의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

성장걸림돌 해소

성장의지를 저해하는 기업 성장의 허들 완화

-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('23.1월,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)

* 투자세액공제율 일반 3 → 7% 신성장·원천기술 5 → 10% 국가전략기술 8 → 15%

- 중견 진입시 과도하게 축소되는 지원 관련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



투자애로 지원

「중견기업 투자애로 전담반」 운영 → 맞춤형 애로해소

- 중견기업계 160조원 투자계획(~'27년)의 적기 이행 지원



중견기업
투자 애로 전담반
(중견기업연합회 內)



실물경제 지원팀
(산업통상자원부)



경제 규제
혁신 TF



3 지방 중견기업 인력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

✓ 지역인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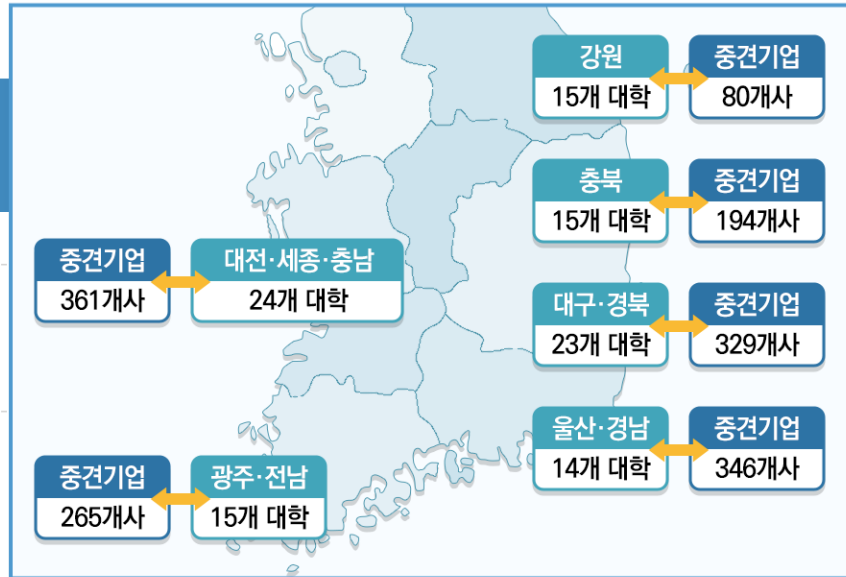
- 교육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 → 인재육성 관련 대학·중견기업간 협력 강화

지자체-105개 지방대학이 협력하여 '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'를 체계적으로 지원
(광주·전남, 울산·경남, 충북, 대전·세종·충남, 강원, 대구·경북 등 '22년 기준 6개 지역)

- 지방 중심으로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편 (수도권 위주 → 권역별 개최)

- 석·박사 계약학과 방식 도입 →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

* 중견기업-지역 혁신 얼라이언스('23년~, 414억) : 석박사 인재 양성 후 중견기업 의무 취업



✓ 외국인력 활용

- 비숙련 외국인력(E-9)

부리 또는 지방 소재 중견기업까지 허용 범위 확대 검토

* 현재 근로자 수 300인 미만에만 허용 → 부리 or 지방소재 중견 405개사가 제외

- 전문인력(E-7)

지방기업에 한해 비자발급 연봉기준 완화('23.1월)

*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80%(약 3,200만원) →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70%(약 2,800만원)

감사합니다



산업통상자원부